

횡성회다지소리

—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강원도 출연작품 —

회리상

때 : 1984. 9. 21 ~ 23

곳 : 충북 충주시 종합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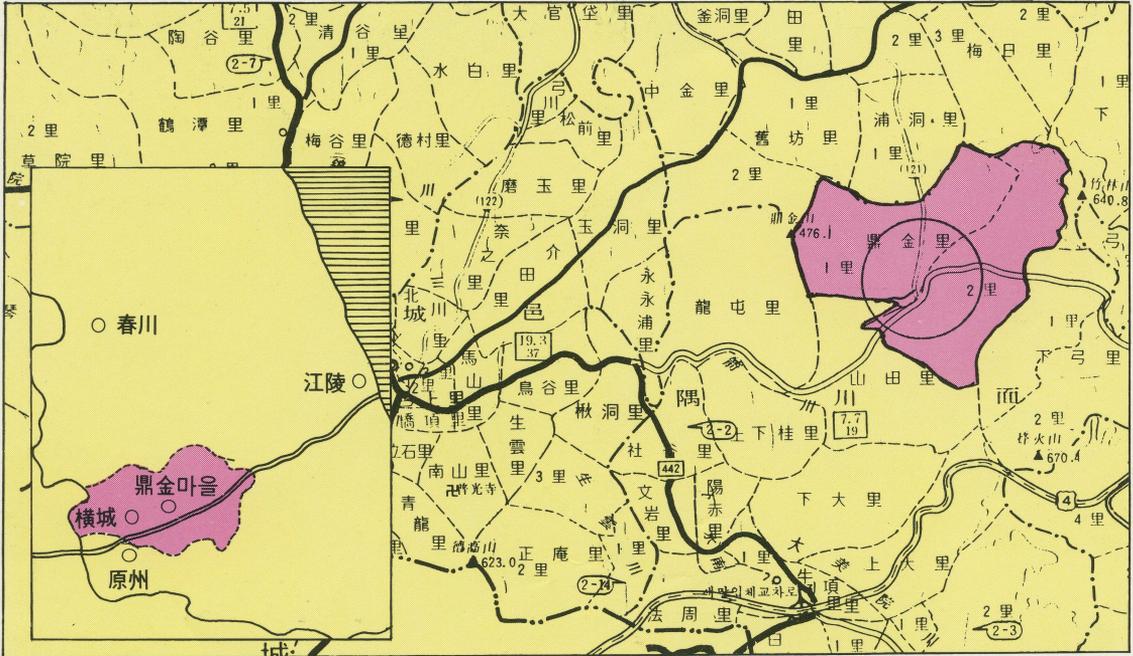
강 원 도





에헤라 달회 에헤라 달회

광중안에 6 지원님	이내말씀 들어보소
광중안에 6 지원이요	광중밖에 나혼잔데
먼데손님 듣기 좋게	가까운 손님 보기 좋게
창포밭에 금잉어 놀듯	금실금실 놀아보세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뤄마라
명년삼월 돌아보면	꽃은 다시 피련만은
인생칠십 길다해도	우리인생 어찌하여
일장춘몽 못면하고	불여귀를 일삼는가
천중세월 인증수요	춘만건곤 복만가라
당상부모 천년수요	슬하자손 만세영이라
긴소리는 그만두고	자진소리 불러볼까
초한가를 불러볼까	회심곡을 불러볼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태어났나
석가여래 제자되어	철성님의 명을타고
삼태성의 복을빌어	아버님전 뼈를얻고
어머님전 살을얻어	이세상에 태어났네
한두살은 철을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이삼십을 당도하니	부모은공 모르다가
오십평생 지나오니	유수같이 빠른세월
오늘에 당도하여	회고하니 눈물일세
어제까지 검던머리	오늘날에 백발되고
태산같은 중병얻어	의원불러 약을쓰니
약덕이 있을소냐	관수불러 점을치니
점덕이 있을소냐	무당불러 굿을하니
굿덕을 입을손가	애닭고 애타게도
이세상을 하직일세 —	



— 황성 정금마을 —

배 경

황성 「회다지소리」는 서울 江陵間 高速道路 주변에 위치한 정금리(鼎金里) 한마을에서
출연했다.

鼎金마을은 新羅에 패주한 진한(辰韓)의 마지막王인 泰岐王이 그 설욕을 꿈꾸며 陣을
쳤던 泰岐山 자락에 位置한 傳統的인 農村마을로서 太白山脈을 中心으로한 영동 영서문화
의 교류지인 동시에 이두문화를 수용하여 이 지방 특유의 전래민속을 형성해온 마을로 회
다지소리 외에 정금미나리타령, 정금농악 등을 간직해 오고 있다.

해 설

“橫城 회다지 소리”는 橫城地方에 傳해오는 民謠로 人間의 出生에서 죽음에 이르는 통
과의례중(通過儀禮中) 상례시(喪禮時)에 불리워지는 노래이다.

한 世上을 살아가는 過程속에서 누구나 한번은 겪는 죽음 앞에서 우리 祖上들이 이렇게
超然해 질 수 있는것은 죽음 다음에 온다고 믿는 극락왕생(極樂往生)의 내세관(來世觀)을
갖고 살아왔다는데 있을 것이다. 즉 多福하게 長壽한 이의 죽음을 호상(好喪)이라하여 슬
픔을 諧謔的으로 克服하고 靈魂을 極樂으로 歡送하는 儀式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相扶相助해 왔기에 우리 모두에게 유대와 共感
을 일으키며 傳承되어왔고 또한 그 독특한 회다지 기능요(機能謠)와 함께 하나 하나의 動
작은 우리 祖上들의 슬기와 藝術的 感覺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는 노랫말 에서도
그러하려니와 느린 가락에서 점차 잦은가락으로 넘어가는 音樂的인 構成에서나 또한 회다
짐의 動作이 두발차기에서 세발차기로 빨라지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번 出演하는 橫城 회다지소리는 이와같은 喪禮儀式中 喪輿의 運柩에서 安葬에 이르는
過程속에서 회다지소리에 焦點을 맞추었다.

발굴, 재현

“회다지소리”가 자취를 감춘것은 서구식 문물의 유입과 장례의식의 간소화에서 부터이다.

수십년전만해도 이 고을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회다지소리를 이번에 원형을 찾아 재현한 것은 우리의 전통의식을 보존하자는데서 비롯되었다. 짐짓 금기시 하는 장례의식을 재현하는데는 망서림도 없지 않았으나 이 또한 소홀히 할수 없는 우리의 문화유산이요, 전통예술이기에 정금마을의 유학자와 기능보유자의 증언과, 황성문화원의 문헌조사, 그리고 관동대학 김선풍(金善豊) 교수의 감수를 통해 원형을 복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회다지소리는 84. 6. 19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전국대회에 출연하게 되었다.

* 고증을 해주신분

- 우천면 정금리 유학자 孫福龍(82세)
- 우천면 정금리 유학자 金在忠(78세)
- 우천면 정금리 유학자 康璇奎(78세)
- 대한노인회황성군지부장 鄭鎬逸(76세)

특 징

★ 황성군은 영서·영동문화가 복합적으로 습합(習合)된 곳으로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 곧 다른 곳의 평범한 ‘회다지 소리’와 달리 노래말은 느린 가락과 자진가락이 있고, 율동은 두발차기와 세발차기가 있다.

* 노래말은 망자를 애도하는 구성진 가락으로 시작하여 점차 산역(山役)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흥겨운 가락으로 전환한다.

★ 회심곡은 망자의 한을 달래면서 상자를 위로하는 기능을 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산역군들에게는 점층적으로 흥을 돋구는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다.

* 특히 자진가락이 나오면서 회전식 세발차기 동작으로 움직이는 지방은 강원도에서도 정금마을 뿐이라는 점이 무용상의 특징이다.

* 또한 각 동작마다 연회(埏灰), 청회(鏞灰), 방회(傍灰)라는 독특한 과장별로 진행되는 점이 구성상의 특징이다.

출연과장

작품구성은 상여의 행진과 하관후의 회다지소리로 양분하였다.

제 1 과장 : 상여행진

망자의 액을 달래는 방상(方相)씨를 선두로 출연기, 만장, 명정, 공포와 그뒤에 요요, 상여, 백가마를 따라 상주와 상여꾼들이 상여소리를 내며 외나무다리를 건너 입장한다.

제 2 과장 : 회다지 율동과 소리

하관이 끝난후의 회를 넣고 다지는 과장으로, 여섯사람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金井)안에 들어가 선소리꾼이 앞, 뒤에 서서 선소리를 주면 회다지꾼들은 율동과 함께 그 소리를 받는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연회(埏灰) 회다지꾼들이 선소리에 맞춰 서로 등을 대고 엮드려서 서서히 다리를 드는 율동을 반복하는 늦은 가락과 동작이다.
- 청회(鏞灰)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바꾸어 쥐면서 회를 다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연회과정 보다는 조금 빠른 중간 다지기이다.
- 방회(傍灰) 회다지가 절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두발차기와 세발차기의 율동과 소리가 매우 빠르고 회를 굳게 다지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는 이지방에서만 전해지는 것으로 여덟사람의 회다지꾼이 한조가 되지만 금정안에는 여섯사람이 두사람씩 교대해가면서 회를 다진다.

회다지가 막바지에 이르면 회다지꾼과 금정밖의 모든 일꾼들이 한데 어울려 큰 율동과 함께 “에헤라 달회”를 우렁차게 부르며 회다지를 마무리 한다.

출 연 자

- 출연인원 : 90명(남 : 86, 여 : 4) • 지도교수 : 金 善 豐 (관동대학교수 · 강원도민속학회장, 文博)
- 민속보존회장(단장) 梁斗煥 • 총 지 도 : 李 鍾 鎬 (횡성문화원 이사)
- 지 도 : 韓 昌 一 (횡성문화원 사무국장)

배역	성명	년월	배역	성명	년월	배역	성명	백	배역	성명	년월
선소리	우영진	65	상두꾼	안창호	42	상두꾼	김도환	72	장치	박용민	46
"	양중환	52	"	이재범	32	"	이종근	62	출연기수	홍석익	42
상주	윤양수	53	"	허성범	34	"	이정섭	41	우승기수	엄문용	42
"	손호창	54	"	윤양식	36	"	원호봉	51	명정	이상용	27
"	안재호	30	"	엄상익	32	"	김일경	49	공포	강승호	32
"	민영화	20	"	송상순	41	"	이병학	42	만장	경철호	26
복수	정택수	68	"	최익수	40	"	신용승	45	"	이우득	52
"	김재충	76	"	이운우	37	"	이계범	42	"	경명호	23
"	차행술	67	"	이병우	52	"	진한두	46	"	엄경태	60
"	엄백순	59	"	유영배	53	"	진기선	41	"	김성범	25
방상시	이종순	62	"	김영배	46	"	이병태	48	"	박병환	27
"	김영택	47	"	이영수	47	"	이진갑	46	"	권민철	25
요요꾼	김의환	50	"	전영기	42	"	이광우	52	"	양재학	27
"	김길종	40	"	이종래	52	"	엄현태	60	"	전제상	27
백가마꾼	손수병	35	"	김병구	41	지계	김만준	59	"	이상수	26
"	안상국	36	"	윤주식	59	"	이호근	52	"	안상선	27
양반	손복용	75	"	김진희	42	여인	권성운	55	"	최두혁	62
"	정승태	63	"	최춘식	41	"	김연순	56	"	엄인용	39
"	윤양선	66	"	김종천	42	"	이필순	52	"	엄재순	46
"	경순석	65	"	장현흠	53	"	홍순옥	46	"	홍순래	53
서민	장기달	72	"	홍재호	40	상자	이종환	56	"	김종철	49
"	최종근	60	"	김남국	41	장치	심성섭	49	"	윤은식	62

